물들어 가는 이 시절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어느덧 낯선 쌀쌀함에 익숙해지며 다시금 가을의 정취가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요즘이다. 늦은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여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푸르고 높은 하늘은 가을의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겨울이 찾아온다고 느끼지만, 익숙해질 만하면 쌀쌀맞게 우리 곁을 다시금 훌쩍 떠나가 버린다. 그렇기에 가을의 정취는 더욱 소중하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듯하다.

가을의 모습은 우리의 올해와도 같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의 기대와 서원을 세웠지만, 어느새 올해가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간의 무상함과 놀라움이 있기에 올 가을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

항상(恒常)한 것이라면 그 항상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무상(無常)한 것이기에 이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간절함에 의해 더욱 담아 두고 싶어진다. 〈중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과거를 좇지 말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을 추구하며 실천하라."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사라짐이 있기에 생겨남이 따라오고, 생겨났기에 다시 사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져
무상·무아 가르침 도처에 존재
오늘을 서원·실천으로 물들이자

라지는 것이다. 불교의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 사라짐이 아쉬워 붙잡으려 하거나 다시 생겨남이 두려워 피하려 한다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 오늘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들 것이다.

이 가을은 지나갈 것이고 올해도 더불어 지나갈 것이다. 아쉬움을 갖기 전 오늘의 지금을 살펴봐야 한다. 놓친 것은 없는지, 잊고 있던 건 없는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확인해 지금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간절하게 보내야 한다. 과거를 좇는 것은 놓치고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아무리 좇는다고 해도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오지 않은 2026년을 생각하며 목표나 생각만을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 오지 않은 미래는 허망한 채로 눈앞에 아른거리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허망함을 줄 뿐이다. 그러나 미련한 과거도 허망한 미래도 모두 오늘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어떠한 미련과 허망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한 걸음씩만 걸어 나간다면, 그 걸음걸음이 쌓여 어느새 '그것에, 그곳에' 다가가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지금의 추억으로 쌓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듯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오늘을 우리의 하루로 온전히 물들이자. 물들이기에 오늘의 색이 변할 것이고 물들였기에 점차 그 색이 빠질 것이다. 원하는 색으로 물들이는 실천이 있기에 오늘의 이 색이 내일의 그 색으로 변할 것이고, 어제의 그 색은 오늘의 이 색과 다를 것이다. 물들어 가는 이 가을, 우리의 오늘을 서원과 실천으로 물들여 자신의 계절로 한 걸음 다가가자.

AI, 기술과 지혜 사이 줄타기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반신반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갸우뚱하는 사람보다는 가능할 거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자율주행부터 노동자 없이 로봇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말벗이 돼 주는 휴머노이드를 가능케 해 주는 현재 인공지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범용 AI(AGI)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AGI는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다. 이 AGI는 그동안 인간 능력 바깥에 있던 난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1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2030년까지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창고를 만들기 위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할 것이며 최대 60만 개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스를 통해 나왔다. 결국 인공지능이 펼쳐 보일 세상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키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알고리즘으로 더욱 편협한 정보를 받으며 양분된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중세 봉건주의가 재림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환경 문제다. AI의 능력은

AGI로 인간 노동서 소외될 것
데이터 전력 소비 환경 문제도
위기의 파고 넘을 지혜 절실해

수많은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와 어마어마한 용량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작동시키기 위해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떠받쳐 줘야 한다.

날로 거대해지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업계 최초로 2025년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Gemini)의 질문 처리 소비 에너지 사용량·탄소 배출량·물 소비량을 포함한 환경 비용을 공개했다. 다만 건당 소비되는 수치만 공개했을 뿐,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총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전 공개했던 추정치들보다 데이터 처리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에너지와 AI'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인간의 폭발적인 상상력이 이만큼 문명을 이룩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원하기에 생각마저 기계가 해 주길 원하는 걸까? 우리는 어떤 문명을 창조하고 싶은 걸까? 이제 세계는 자유 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드는 듯하다.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추동할 여력이 없어진 틈바구니에서 등장한 인공지능 기술이 또다시 인류의 미래를 분홍빛으로 바꿔 주길 기대하는 걸까? 과연 인공지능이 열어 보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까?

기후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 상태인 티핑 포인트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묵시록적인 전망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지 꽤 된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성장의 도그마를 찾기에 급급한 인류는 이제 기술과 지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문명사적 위기의 파고를 넘을 지혜가 아닐지.

社 說

사회 갈등 일으킬 '특혜' 안 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다시 논란이다.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려에도 대회조직위원회가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몰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구에서 열린다.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참석하며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사업비는 2950억원으로 추산했다.

조직위는 대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성찰하고 나누는 축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톨릭 교황청이 주관하는 종교 행사다. 대회의 핵심가치는 '복음에 바탕을 둔 인간 존엄성 성찰'이고 주요 행사는 개막 미사, 교황 환영 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등이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종교 행사에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다. 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톨릭은 오랜 전통과 사회적 신뢰를 가진 종교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공공의 영역까지 확장될 때는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조직위는 불교계의 우려를 '발목잡기'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창종 60돌 관음종에 거는 기대

관음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관음종은 10월 2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개산조 태허 흥선 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관음종의 시작은 태허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중국서 구법순례를 하며 수행 정진한 태허 조사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7년 관음종의 모태가 되는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했다. 이후 1958년부터 2년간 탑골공원에서 이뤄진 태허 조사의 거리설법은 관음종 창종과 전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 관음종이 창종 기념행사를 탑골공원에서 봉행하는 이유도 이 같은 태허 조사의 거리설법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이번 60주년 기념 법회에서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종단이 나아갈 큰 방향을 대중에게 선언했다. 홍파 스님은 태허 조사의 혜안을 계승해 앞으로 펼쳐질 AI(인공지능)시대의 전법을 선도해야 함을 종도 대중에게 강조했으며, 법명 스님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AI시대에 발맞춘 전법·포교와 다문화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인권운동, 다문화 가정 대상 복지사업은 한국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전법 및 사회실천 분야의 화두다. 관음종이 태허 조사의 가르침을 이어 내며 펼칠 전법·사회실천 행이 한국사회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성사
• 주 지 : 법정 스님 (속명 : 송철수)
• 주 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48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대한불교용화미륵선불종 총무원장 법하